



신분도용 용의자 김성순씨를 공개수배하는 기자회견장에서 김씨의 혐의에 대해 설명하고
<전홍철 기자>

총영사관 앞 무궁화 식수

범미주무궁화협회(회장 노수복)와 한국근우회(회장 김복림), 다문화협회(회장 이명희) 회원들이 2일 LA 총영사관저 앞에 13그루의 무궁화 묘목을 식수하고 있다. <전홍철 기자>

'시바 비전' 콘택트렌즈 리베이트

지난 12년간 '시바비전'의 일회용 콘택트 렌즈를 구입한 소비자는 앞으로 일회용 렌즈 재구입시 35달러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바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간의 이날 합의안에 따르면 시바는 지난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자사의 일회용 콘택트 렌즈를 구입한 소비자가 앞으로 다시 일회용 렌즈를 구입할 경우 35달러의 현금 리베이트와 함께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징용피해 증거 만주일대 포함

재판부 피고측 연기요청 기각...조속 증거수집 지시

캘리포니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인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집단소송이 증거수집작업에 들어가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LA에 있는 신혜원, 케네스 한, 베리 피셔 등 미국내 한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1일 오전 LA지방법원 59법정(브루스 미첼 판사)에서 피고측 변호인단과 두번째 절차심리를 갖고 본격적인 증거 및 증인수집 작업에 들어갔다.

1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심리에서 미첼 판사는 원고측 변호인단에서 요구한 ▲증거수집 범위를 본국 전역과 만주일대까지 포함시키고 ▲증인일 경우 당시 일본회사에서 근무 하던 책임자나 일반 직원까지 해당자를 확대하며 ▲일제 징용기간을 원고 정재원씨가 근

다.

이날 피고측 원고인단은 현재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서 계류중인 케이스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번 케이스의 법적 진행 절차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미첼 판사는 재판 진행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90일동안 증거수집을 마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측 변호인단은 재판 진행에 필요한 증거 및 증인신원에 대한 자료를 3번

째 절차심리가 열리는 오는 2001년 2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재원씨 등 한인 징용 피해자들은 작년 10월 4일 가주에서 지난 99년 7월 28일 통과된 가주징용배상 특례법에 의거, 일본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에 들어갔었다.

장연화 기자

<cyha@joongangusa.com>



부 음

나성영락교회 김봉아 장로

입관예배는 5일(일) 오후5시 한국장외사에서 열리고 영결예배는 6일(월) 오전10시 같은 장소에서 있을 예정이다.

집례는 나성영락교회 박희민 목사가 맡는다.